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0. 11.(금) 11:00 < 10.12.(토) 조간 > 배포 2024. 10. 11.(금)

불공정무역으로부터 우리기업 보호, 협회가 나선다

- 무역위원회, 21개 협·단체 대상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 및 관련 지원제도에 대해 교육하는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10.11.(금) 개최했다.

지원센터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을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위원회가 업종별 협·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조직으로, 금년 6월 기존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의 무역구제제도 홍보 기능과 반덤핑제도 지원기능을 강화해서 개편한 것이다.

워크숍에서 40여 명의 지원센터 참석자들은 덤핑방지관세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등 무역위원회가 운영하는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불공정무역행위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무역구제 신청을 지원하는 제도인 「무역구제 조사·상담 서비스」* 및 「중소기업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시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사업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받았다.

* 기업의 무역구제 신청 전에 제소요건 사전검토, 피해조사, 자료준비 등의 컨설팅 제공
** 중소기업이 무역구제 신청을 목적으로 대리인 선임시 선임비용의 50%(최대 5천만원) 지원

지원센터는 오늘 워크숍에서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소속 회원사와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우리 기업들의 보호에 앞장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무역위원회는 역량강화 교육의 지속 실시, 교육교재와 홍보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지원센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 정석진 무역조사실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늘 워크숍을 계기로 무역위원회와 각 지원센터가 힘을 합쳐 더욱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안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진수 (044-203-5350)
		담당자	사무관	송수진 (044-203-585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 및 지원센터 개요**

□ 워크숍 개요

○ 일시, 장소 : 10.11(금) 11:30 ~ 16:00, 코리아나 호텔

○ 참석자 : 무역위 정석진 무역조사실장 외 조사관, 22개 지원센터 임직원 40여 명

○ 주요 내용

- 지원센터의 무역구제제도 홍보활동에 대한 무역위 지원계획 공유
- 무역구제제도 및 무역구제제도 지원제도 교육
- 홍보활동 및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토의 등

□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개요

○ 법적 근거 :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 고시 제2024-1호)

○ 주요 기능

- 불공정무역행위, 특정물품 수입증가, 덤핑 등의 신고 접수, 혐의의 제보, 조사 신청
- 피해자료의 수집, 물품의 수입감시, 동향 분석
- 무역구제제도의 홍보, 무역구제 신청을 위한 상담 및 시장조사

○ 지원센터 지정 현황 ('24.10월 기준)

- 기계, 의료기기, 로봇 등 주요 업종 위주로 23개 협·단체

*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한국베어링산업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무역협회,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완구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패션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